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용서를 받는 방법은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홍 감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자신에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움"으로 전락했다. "홍명보의 부정출발"이라고 한다. 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되었다고도 한다. "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등문 짜짜미"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감독선임을 주관하는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은 "홍 감독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몰랐다"고 한다. 박지성은 "진실은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에서 사라져야한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꼬집는다.

홍명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독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팀 리더십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게 근거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 두고 협상 중이

홍명보와 한동훈

다." 나아가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한 자릿수로 압축했다"고 말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감독 선임 원칙과 절차 제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붕괴다. 리더십 선임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모두 문제가 되었다. 과정과 결과 모두의 실패는 결국 한국축구의 퇴보로 나타난다.

"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1988년부터 올림픽 10연패의 여자양궁이다. "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경쟁력 중심의 선수선발이 세계 정상 수준의 출발점이다. 선수 선발은 물론 운영과 관련하여 뒷말이 없는 이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협회가 선수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히딩크 감독이 "인맥축구"와 "위계축구"를 물어낸 성과가 월드컵 4강이다. "외리축구" 논란의 2014년 월드컵 때의 당사자가 바로 홍 감독이었다.

양궁협회는 국내 단일종목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받는다. 그들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들은 '양궁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고 한다. 존재의의를 넘어선 공동체 기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축구와 양궁의 대비는 뚜렷하다. 사람에 의존하는 개인화도 리더십, 절차와 과정의 시스템과 제도화의 다른 결과로 보인다. SNS 언급에서도 '공정의 정의선과 부정의 정몽규'라고 한다.

'홍명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축구협회가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감독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국축구는 올 1월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선수구성으로 64년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는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졸전이였다. 당시 대표팀은 "오합지졸 사본오열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스타 출신의 관리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된다. '절술가보다 보스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타 플레이어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책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원팀 윈스피리 윈플'을 강조한다. '대표팀에서는 축구지식보다 통솔력이 더 중요하다'며 "초반부터 국내 감독 중에 홍명보였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명보 논란'은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 인지는 100%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담당하지도 못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는 상황 인식과 한동훈 리더십의 선택이다. 출발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극복의 차별화' 요구다.

"국민께 제일 걱정 끼치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미션을 이해할까? 그의 "국민 눈높이, 미래의 유능 그리고 외연확장"을 통한 공공성은 무엇일까?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믿음 세계에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다. 대강 그 예를 들어보자면, 믿음이 없어서 접하는 것마다 모두 불신해 버리는 경향, 믿음이 진실을 등지고 거짓에 합류해 버리는 경향,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철학도 기준도 원칙도 없이 기분이나 욕심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이해(利害) 관계에 따라 믿음과 불신이 좌우되는 경향, 친소(親疎)에 따라 믿음과 불신이 좌우되는 경향, 미운 사람 예뻐 데 없고 예뻐 사람 미운 데 없는 경향, 표피적인 시비 따라 믿음과 불신이 좌우되는 경향, 속 깊은 시비선악과 장단·경중·허실에 따라 믿음과 불신이 좌우되는 경향, 모두를 믿어 주는 근본적 믿음의 기반 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기다려 주면서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개선까지 해주는 경향 등의 예가 있다.

또는 그 믿음은 쾌락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재물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명예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안일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권리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취미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상(相)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보람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기타 모든 인연과 현상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을 따라다니며 희비(喜怒哀)를 그려낸다.

이러한 믿음 환경의 혼재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찾아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선택은 가장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없는 것'부터 가려내야 한다. 먼저 '믿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요, 사실적인 것이요, 실상이요, 합리적인 것이요, 믿음 가치의 비중에 높은 것'이다. 반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거짓이요, 위장적요, 허상이요, 불합리한 것이요, 믿음 가치의 비중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현실 속에 도사리고 있을 때는 그 어느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어느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낭패를 겪으면서 이해득실(利害得失)과 고락영고(苦樂榮枯),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엄히 고설겨 현실은 천차만별의 가관을 이룬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잘 가려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큰 숙제이다.

더욱이 흑세무민하는 미신은 믿으면서 대낮 같은 정법정도(正法正道)는 안 믿고, 사사로온 술수에는 현혹되면서 대경대도(大徑大道)는 외면한다. 이처럼 결국은 안 믿을 자리를 믿는 것이 큰 실수요, 믿을 자리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또한 큰 실수로 똑같이 큰 낭패를 당한다. 이 모든 뜻을 담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과보응되는 원리를 따라 믿으라는 뜻이다. 즉 결과 보

장이 확실한 것을 믿고 결과에 반하는 것이나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확실히 터득했다면 이것을 일러서 깨쳤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결과물은 그 이면에 반드시 원인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다. 원인 없는 결과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것을 인연과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이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인연과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좋은 결과에 반하는 것이나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단산나무가 우리에게 죄책을 줄 수 없는 것인데, 단산나무에게 믿음을 주고 정성을 바치며 불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 맹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만 남는다. 오히려 시간과 경제와 정력만 낭비할 뿐이다.

시간과 경제와 정력은 우리가 정당하고 효율적인 원인과 행위에 쏟아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어찌 한 톨인들 낭비할 수 있으랴. 이 이치를 모르면 믿음 자리를 안 믿고, 안 믿을 자리만 믿거나 또는 그 믿음이 흑중흑부중(或中或不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경제와 정력을 모두 소모해 버린다. 그러므로 믿음 선택은 참으로 정확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없게 된다. 온 인류가 인과보응의 믿음 정신에 눈을 뜨게 하고 인과보응의 신앙문에 들어서게 하는 일이 절박한 문제요, 모든 문제 해결의 원초적 과제이다.

시네마테크로 영화 숨 쉬는 문화도시 광주를

보존 기관이다. 영화를 문화유산으로써 수집, 복원, 공개하고 무엇보다 영화를 통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영화라는 단일한 예술 분야를 넘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로서 국민의 문화적 역량 발전과 국가와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문화와 예술로서의 영화가 갖는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정책 의지에 기반하여 시네마테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는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서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영화를 사랑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광주에서의 시네마테크 설립은 미술과 미디어 아트 분야에 대한 부단한 지원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도시라는 목표를 한층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중 예술인 영화를 통한 광주의 문화 경쟁력 향상의 토대가 민간 분야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영화인은 영화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의 열의를 기반으로 광주 영화의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2017년 광주영화영상인연대를 창립했다. 2024년 현재까지 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

크 활동을 통해 광주 영화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캐나다 퀘벡 내셔널 데이 행사를 광주독립영화제에서 진행했다. 다가오는 9월에는 현대 미술 분야의 세계적 미술관인 파리 퐁피두 센터와의 공동 협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영화제와 함께 베니스 인 광주를, 4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5·18사진전을 개최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의 광주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광주여성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의 영화 창작자들이 더욱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최근 직면한 국내 영화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주영화학교, 지역영화 배급 등의 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예술영화 전용관인 광주극장, 광주에서 창작되고 제작된 영화를 볼 수 있는 광주독립영화관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화 상영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영화를 통한 도시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목표는 영화 유산의 의미를 갖는 국내외의 고전영화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네마테크 설립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고전영화의 시너지 효과가 이뤄지면, 영화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광주의 문화 발전에 분명히 이바지할 것이고, 관성적인 수사를 넘어 광주가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수준 낮은 광주·전남 중환자실 개선책 절실

광주·전남지역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중환자실 10곳 가운데 8곳 정도가 중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거나 관리하는데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곳이 78%나 됐으며,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가 없거나 감염 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병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 환자 보호자들이 우려할 정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종합병원 28곳 가운데 중환자실 전문의가 배치된 곳은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환자실 전문의가 배치된 병원도 의사 1인이 담당하는 병상 수가 적정 수보다 월등히 많아 의료 질을 담보

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중환자실 전문의는 중환자실을 맡는 상급 전문의로 중환자 관리와 입·퇴원을 담당한다. 종합병원들의 전문의 미배치는 발병이나 사고 발생시 환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대학 병원을 찾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1-2 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28곳(광주 10곳, 전남 18곳) 중 5곳에 불과했다. 이중 전남은 1등급이 단 한 곳도 없었고, 2 등급도 고작 1곳에 그쳤다. 또한 전남은 18곳 중 7곳이 4-5등급을 받아 지역 병원 중환자실의 열악한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병원 인프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환자실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된 중환자실 근무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등 유인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 폭염에 무방비 방치

연일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힘들지만 폭염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에는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현장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 북구 용봉동 한 철거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소'라고 적힌 접이식 텐트 한동이 설치돼 있지만 선풍기조차 없고 철재 가림막 탓에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북구 중흥동의 건물 신축현장에도 휴게소는 있지만 이용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휴게소 주변에 벽돌 등 공사자재가 쌓여 있어 바람이 전혀 들지 않는데다 선풍기를 틀어도 습도가 높은 바람 때문에 현장 주변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보면 실외 작업장에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필요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 냉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오후 2-5시에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정부 지침이 꿈같은 소리라고 말한다.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만 쾌적하게 쉴 곳이 없어 차안에서 에어컨을 틀며 더위를 피하는 현실이라 정부의 예방 가이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폭염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뻔하다.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폭염을 심각한 기후 재난으로 인식해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요란하게 대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폭염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방치해선 안된다. 주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이들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無等鼓

에펠탑이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지내던 지단이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원한 '중원 사령관'의 등장은 당연히 보였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 프랑스하면 '아트 시키'를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성화는 올림픽을 기다리는 재미 중 하나다. 개회식 성화 봉송 주자와 성화 점화 방식은 '비밀'이다. 사실 '비밀'이지만 여러 추측이 나오고 결국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성화최종주자는 비밀이었지만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에서 펼쳐진 '피겨 여왕'의 우아한 연기는 예상 밖이었지만, 최종 점화자로도 언급됐던 지단, 하지만 그에게 성화를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른 인물을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는 '클레이 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이었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성화 주자로 부족함이 없지만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은 그의 국적이다. 순간 '나달이 프랑스 사람이었나?'라는 황당한 생각까지 했다. 에펠탑 아래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개

회식인 만큼 당연히 '프랑스'를 생각했다. 나달은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다. 편견에 갇힌 머리가 부른 혼란함은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됐다. 나달은 필리피 장비에 있는 열기구 모양의 성화대로 가기 위해 셉강 위보트에 올랐다. 보트에서 그를 맞은 이들은 '육상 전설' 칼 루이스,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이상 미국), 체조 사상 첫 '10점 만점' 연기를 선보였던 나다이 코마네치(루마니아-미국 복수국적)였다. 스포츠를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들. 특히 우사인 볼트 이전 원초 번개맨은 칼 루이스였다. '발이 빠

른 사람=칼 루이스'였던 시대가 있었다. 프랑스 사람은 없는, 단 프랑스 오픈 14차례 우승 이력만 있는 나달을 중심으로 이색 성화탑이 셉강을 달렸다. 이번 개회식은 편견을 깬다. 개회식 공연에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았다. '프랑스답다'는 조소 섞인 반응과 종교적 논란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선상 개회식은 편견을 깬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든 밤이었다. /김여울 채육부 차장 wool@

편견

은 사람을 몰라

기 고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이번 올림픽은 세계인이 문화와 예술로 충만한 도시 파리를 생생하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펠탑, 개신문, 샹젤리제라는 물론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등 미술관과 그랑 팔레, 오페라 가르시니에, 바스티유 오페라 등 유려한 공연장이 시청자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스포츠 행사를 넘어 수 천 년이 넘는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눈을 경이롭게 하고 있다. 비록 올림픽은 단기간 지속되었지만 행사가 치러질 파리라는 도시는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는 대중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의 발생지이며 가장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문화의 중심지다. 프랑스는 영화 문화의 전승을 선도하고 있다. 영화 유산 보존의 의지는 파리에 있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를 통해 구체화한다. 영화를 사랑하던 영화광인 앙리 랑글루아가 1936년에 창립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유산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 | |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인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80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